

##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 전략

설 옥 순  
(세종대)

### 1. 서론

영어를 배울 때 여러 품사들 가운데 특히 동사를 배우기가 대체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Hirsh-Pasek and Golinkoff 2006 365). 이런 현상은 번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영어의 시제(tense)와 시상(aspect)이 한국어의 시간 표현 방식과 다른 점에 주목하였다.<sup>1)</sup> 왜냐하면 시간이 언어화된 시제와 시상의 문법 범주와 기능은 언어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제와 시상의 문법 범주와 기능이 언어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각각의 언어에서 체계를 갖춘 시제와 시상이 자연과학

1) 이 연구에서는 영어의 'tense'와 'aspect'에 대응하는 말로서 '시제'와 '시상'이란 용어를 각각 채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tense는 시제(時制)로 번역되어 용어 사용이 대체로 통일되어 있는 데 비하여, aspect는 시상(時相)이나 상(相)으로 번역되어 혼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시제와 대비를 이루는 용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상(時相)이란 용어를 채택하였다.

에서 말하는 시간과 다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시간에 현재가 없다고 보며, 우주 대폭발에서 비롯된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줄곧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에 대한 언어 체제인 시제와 시상에서는 시간 파악에 있어서 발화 시점인 현재가 중심이며 시간에 구역을 설정하여 나누어 파악해온 경향이 있다. 언어학의 관점에서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지속되는 선이며(Baker 1998 245), 시제는 선으로 가정된 시간 선상에서 문법화된 위치로 파악되고 있다(Comrie 1985 11). 시제와 시상의 관계에 있어서 시제는 문장의 외부 상황과 연결된 시간이고, 시상은 문장의 내부 상황과 연결된 시간이다(Comrie 1976 5). 시상은 시제와 연관된 다양한 시간 현상을 나타내지만 문장의 외부 시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시제와 시상은 시간을 체계화시킨 방식에 의해 언어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하티姆과 메이슨(Hatim and Mason 1990 27)은 시제의 체계가 언어 사이에 일 대 일 대응 관계를 결핍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컴리(Comrie 1976)는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비교하여 시상이 언어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예시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시간과 관련된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시제와 시상의 유형과 표현 방식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언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수한 시점의 동적인 집합인 시간을 시제와 시상으로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문법 범주와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부를 시제와 시상의 체계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제와 시상은 언어가 속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이 언어화된 시제와 시상에 대하여 영문학, 국어학, 언어학 등에서 연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번역학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물에서는 시제 및 시상과 관련된 표현을 번역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조명해왔다. SL과 TL의 불일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ST와 TT의 불일치 사례에 관심을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sup>2)</sup> 따라서 영한 번역의 중요한 영역인 시제와 시상에 대한 번역 전략은 체계적으로 논

2) SL은 Source Language(원천언어)의 약자이고, TL은 Target Language(목표언어)의 약자이며, ST는 Source-language Text(원천언어 본문)의 약자이고, TT는 Target-language Text(목표언어 본문)의 약자이다.

증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영한번역에서 나타나는 시제와 시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그 번역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주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영어 시제와 시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영한 번역에 있어서 시제와 시상’을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논문은 SL의 시제와 시상을 TL로 번역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룬 한국어의 시제와 시상을 논의한 매우 다양한 관점의 선행 연구들도 검토하여, 그 분석 결과를 종합하였다.

## 2. 영어와 한국어 시간 표현 방식의 비교

영어에서 시상이란 시제와 연관되어 동사(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며, 주로 완료 시상(have + 동사의 p.p.)과 진행 시상(be + 동사ing)을 중심으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동사이외에 형용사[관형사], 부사, 명사 등에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어미와 조사가 매우 다양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 시간 표현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영어와 한국어 시간 표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영 어	국 어
영 어 와 한 국 어 시 간 표 현 의 차 이 점	구조	시간의 언어화 단위 동사와 범조동사(modal) <sup>1)</sup>	1. 어미: - 동사의 어미 - 관형사절, 명사절, 부사절의 어미 2. 시간부사
	기능	시간의 언어화 방법 1. 동사의 변화나 추가 2. 외적인 시제일치 3. 범조동사(modal)를 동사와 분리하여 사용 4. 완료 시상이 명확	1. 어미 변화 2. 심층적인 시제일치 3. 범(modal) 기능의 어미를 단어 속에 사용 4. 완료 시상이 불명확
영 어 와 한 국 어 시 간 표 현 의 공 통 점	기능	시간의 언어화 단위 에 중복되는 기능 수(단수와 복수), 인칭, 양태, 서법 존대는 범조동사에 일부 있음	동사의 어미: 존칭과 비칭, 양태, 서법 관형절, 명사절, 부사절의 어미: 존대, 겸양, 양태, 서법
	기능	시간 부사의 기능 보조 기능: 시간을 나타내는 보조 기능	대체 기능: 시간 어미의 대체 기능 <sup>2)</sup>
영어와 한국어 시간 표현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현재를 설정하여 중시</li> <li>- 흐르는 시간에 구역을 설정하여 시제와 시상을 파악</li> <li>- 진행 시상에서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의 모호함</li> <li>- 현재완료 시상에서 현재와 과거 관계의 모호함</li> </ul>	

1) 영어에서 modal은 시상을 나타내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 같은 동사는 범조동사로 분류되고 있음(Binnick 1991 8, Allan 2001 343-79)

2) 한국어에서 시간부사의 시간 어미 대체와 관련하여, 제 4장의 제 1절 참조

동사의 활용 측면에서, 영어에는 ‘원형’, ‘3인칭 단수 현재형 -s’, ‘과거 시제형 -ed’, ‘과거분사형 -en’, ‘진행형/동명사형 -ing’와 같이 다섯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활용 양상이 매우 복잡하여 하나의 동사가 취할 수 있는 활용 형태의 수가 수 천 개에 이를 수 있다(홍재성 2002 130).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동사를 변화시키거나 추가하여 시제와 시상을 동사(구)에서 함께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관형사 등의 어미를 바꾸거나 시간부사를 추가하여 미세한 시제와 시상을 비교적 간단하게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어미변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한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시간을 표현하는 말과 글쓰기가 발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는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각의 단어와 어미를 결합시키는 ‘연결 순서’, ‘결합 요소’,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게 난다. 연결 순서 측면에서, 영어에서 시제와 시상은 문장 안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변화되거나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문법 현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동사의 어간<sup>3)</sup>에 붙여 쓰는 어미에 의해서 결정된다.<sup>4)</sup> 한국어에서 동사를 분해하면, 의미를 전달하며 변하지 않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 시제와 시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하-’라는 어간에 ‘-였-’이라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붙고,<sup>5)</sup> 이에 ‘-다’라는 어말어미가 붙어서, ‘하였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진다는 방식이다(한국어의 동사 = 어간 + 선어말어미(들) + 어말어미). 여러 개의 선어말어미가 결합되는 순서는 ‘1) 존재 어미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 ‘2) 시제와 시상의 어미’ → ‘3) 겸양 어미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어미)’ → ‘4)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인 것으로 보는 것이 공통적이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sup>6)</sup> 한편, 동사의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는 문장을 끝맺는가 혹은 연결시키는가에 따라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비종결어미)로 구분된다.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놓여서 평서, 감탄, 의문, 명령, 청유 등과 같은 서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어의 범조동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결어미(비종결어미)는 다른 문장과의 관계에 따라서 ‘연결어미(접속어미)’와 ‘선성어미’로 구분되는데, 연결어미는 한 문장을 다음 문장으로 이어주는 기능

- 
- 3)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홀로 문장 속에 쓰일 수 없는 요소를 어근(radical)이라고 할 때, 한국어 동사의 어간(stem)은 어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4) 이와 관련하여, 영어에서는 동사의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국어에서는 동사의 기본형이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국어에서는 동사의 어간(stem)에 현재·과거·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와 시상 선어말어미를 각각 붙여서 시간현상을 표현하는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는 ‘-는-’, ‘-느-’, ‘-ㄴ-’ 등이 있다.
  - 5)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선어말어미는 ‘-았-’과 ‘-었-’이지만(모음조화 규칙에 따라서 ‘-았-’이나 ‘-었-’을 선택한다: “보았다”, “먹었다”), “-하다”와 “-이다”로 끝나는 어간에서는 선어말어미 ‘-였-’을 사용한다.
  - 6) 이와는 다르게, 선어말어미의 구분을 세 가지로 하여 ‘겸양 어미’를 설정하지 않고 ‘회상 어미’를 ‘서법 어미’로 본 견해가 있으나(홍재성 2002 139), 어말어미에 매우 다양한 서법 기능이 있고 한국어는 준비어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겸양 어미’와 ‘회상 어미’란 용어를 채택하였다.

을 하고, 전성어미는 동사를 명사, 관형사, 부사로 전성시키는(바꾸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연결어미는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등어미, 종속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통상 구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결합 구조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영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표 2> 영어와 한국어에서 시제와 시상의 연결 위치 비교 (2-1)

영 어	동사구에서 단어의 연결 순서					태	시제와 시상		
	순서5	순서4	순서3	순서2	순서1				
용 례	현재	-	-	-	can	write	능동	시제	
	과거	-	-	-	-	wrote			
	미래	will	-	-	-	write			
	현재	-	-	is	-	written			수동
	과거	-	-	was	-	written			
	미래	will	-	be	-	written			
	현재완료	-	has	-	-	written	능동	완료	
	과거완료	-	had	-	-	written			
	미래완료	will	have	-	-	written			
	현재완료	-	has	been	-	written	수동		
	과거완료	-	had	been	-	written			
	미래완료	will	have	been	-	written			
	현재진행	-	-	-	is	writing	능동	진행	
	과거진행	-	-	-	was	writing			
미래진행	will	-	-	be	writing				
현재진행	-	-	is	being	written	수동			
과거진행	-	-	was	being	written				
미래진행	will	-	be	being	written				
분 석	동사구에서 쓰이는 위치	← modal(범조동사)이나 시제 →					동사에 단어를 추가시켜 시제와 시상의 기능을 확장시킬 때, 동사의 본래 의미를 간직한 head 앞으로 태, 진행, 완료, modal이나 시제의 순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구의 의미는 맨 앞의 modal이나 시제가 결정될 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	← 완료 시상 →						
		-	-	← 진행 시상 →					
		-	-	-	← 태 →				
		-	-	-	-	의미 (head)			

〈표 2〉 영어와 한국어에서 시제와 시상의 연결 위치 비교 (2-2)

한국어	순서1	순서2	순서3	순서4	순서5	순서6	순서7	
구분	결합 순서	동사어간 (stem)	선어말어미(혹은 보조어간)			어말어미		
			존대 어미	시제어미 (시상과 서법 포함)	겸양 어미	회상 어미	종결 어미 (서술, modal)	연결어미 (modal 포함)
	주요 어미	어간	-시- -읍-	<시제> 현재:-는- -느- -니- 과거: -았/었- -였- -더- 미래:-겠- -리-  <서법> 직설:-느- 회상:-더- 추측:-겠- -리-	-사옵- -사옵- -자옵- -옵- -삼- -잡-	-더-	-다 -네 -오 -지 -버니다 (으)면 -거든 -더라도 (으)니 -므로 -어야 (으)러 -다가 -르 수록 -르 망정 -는데	-고 -며 -면 -거니 -지만 -나 -거나 -든지 -든가 -든 -느니
용례	하- 하- 떡-	-시- -었+겠- -겠- -었-	-았+겠- -겠- -었-	-사옵- -사옵- -자옵- -옵- -삼- -잡-	-더- -더- -더-	-이다 -다 -니	-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와 한국어는 시제와 시상에 부가적으로 결합되는 요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어에서는 존대를 표현하는 시상 체계가 대체로 ‘would,’ ‘should’와 같은 범조동사를 사용하여 존대를 제한적으로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를 높이는 존대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어미까지도 체계가 잘 갖추어져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어에서는 시상 체제에 태(voice)를 표현하는 기능이 연결되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이 완료나 진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수동 표현을 대체로 어색한 어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미를 연결할 때 좀처럼 수동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7)

7)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게시자료에 따르면, 한국어 통사론에서는 영어와 다르게 ‘능동-수동’이 아닌 ‘능동-피동’이라는 범주가 사용되고 있다. 이 구분에서 피동(被動)이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뜻하며, 그 대표적인 용례는 ‘-

무엇보다도 영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쓰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서법<sup>8)</sup>이 동사구의 맨 끝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맨 앞의 법조동사에서 처음부터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어미를 존대어미와 겸양어미 사이에 쓰게 되어 있고, 법조동사의 의미를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장 끝의 종결어미가 결정된 뒤에야 시제와 시상의 기능이 확정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시제와 시상은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속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영어의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핵심 과제는 영어 ST에 쓰인 시제와 시상에 보다 더 적합한 한국어의 시간 표현 용법을 선택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시제와 시상은 한국어의 동사에만 옮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동사 이외에 시간부사, 명사, 형용사, 관사,<sup>9)</sup> 의존형태소<sup>10)</sup> 등에서 표현되며, 영어와 달리 종속절의 시제 일치를 어색한 어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영어에서는 동사가 동작동사(action or dynamic verb)와 상태동사(stative or state verb) 등으로 구분되고, 이

어지다,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이 있지만, 한국어의 한 가지 특징은 수동태의 불비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에서 온 수동태를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으나, 피동형의 빈번한 사용은 국어 문법과 문체와 맞지 않는 번역투이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발상을 바꿔야 한다.
- 그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 그는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
- 공격의 찬스가 주어지면 → 공격할 기회가 오면
- 우리 선수에게 퇴장이 주어지는군요. → 우리 선수를 퇴장시키는군요.

- 8) 서법이란 말이나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범주 내지 동사의 어형 변화를 말한다. 영어에서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등이 대표적인 서법인 반면에, 국어에서는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 청유법 등이 대표적이기에, 영어와 국어의 서법의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 9) 한국어 학계의 품사 분류에서는 관사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날을 이르는 ‘그날’이나, 바로 지금의 때 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을 이르는 ‘이때’처럼 붙여 쓴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영한 번역을 다루고 있기에, 한국어의 ‘이/그/저’가 영어의 관사에 상응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볼 때 ‘이/그/저’는 영어처럼 체언과 떨어져 써야 할 것이다.
- 10) 의존형태소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즉 접사(접두사와 접미사), 조사, 어미 등을 말한다.

구분에 의해서 진행 시상의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만,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상태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예 없는 대신에 형용사와 명사<sup>11)</sup>의 어간에 ‘-하다’, ‘-다’, ‘-고 있다’ 등을 붙여 합성동사를 만들어서 영어의 상태동사를 나타낸다.

### 3.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 전략

이상과 같은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 및 시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에 있어서 직역 이외에 두 가지 번역 전략, 즉 ‘통사론적 번역 전략: 품사 전환 번역’과 ‘화용론적<sup>12)</sup> 번역 전략: 맥락 활용 번역’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순차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표 3> 시제와 시상에 대한 단계별 영한 번역 전략

단 계	번역 전략
1 단계: 단문일 때	· 직역 : ST 동사의 시제와 시상을 TT의 동사에서 직역
2 단계: 문장이 길 때	· 1 단계에서 번역된 시간 표현이 한국어답지 못할 때 시도 · 통사론적 측면에서 품사 전환 번역: ST 동사의 시제와 시상을 TT의 동사가 아니라 시간부사, 명사, 형용사, 의존형태소 등에서 번역
3 단계: 두 문장 이상일 때	· 2 단계에서 번역된 시간 표현이 한국어답지 못할 때 시도 · 화용론적 측면에서 맥락 활용 번역: 문장의 심층 구조를 활용하는 번역 (맥락 활용 번역시, 품사 전환 번역이 흔히 함께 적용됨)

- 11) 한국어에서 “명사는 전형적으로 사람/장소 또는 사물을 지시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로 명사적 의미의 범위는 이들 의미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행위나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술어적 의미 부류를 표상할 수 있다”(홍재성 2002 133-34).
- 12) 화용론(Pragmatics)과 의미론(Semantics)은 언어의 의미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통점 때문에, 흔히 유사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둘은 비슷한 면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의미론의 주된 초점은 언어표현 내적인 면에 있는 반면에, 화용론의 중심은 맥락이 개입하는 의미현상을 비교적 폭 넓게 다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논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화용론과 의미론이란 용어를 상황에 맞게 모두 사용하였다.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문장이 연결되거나 종속절이 있을 경우, 시제 일치를 시킨 직역이 어색한 표현으로 간주되고, 주절의 서술어에서만 시제와 시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시제와 시상이 동사 이외의 시간부사, 명사, 형용사, 의존형태소 등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통사론적 번역 전략과 화용론적 번역 전략이 불가피하다. ST가 단문일 경우에는 직역을 해도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ST가 여러 문장으로 이어져 있거나 종속절이 있을 경우에는 주절의 서술어에서만 직역이 제한적으로 시도될 뿐 과감한 의역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직역으로써 ST의 시제와 시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절의 서술어마저도 품사를 전환하거나 맥락을 활용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영어 문장들이 연결되어 시제와 시상이 여러 개가 쓰이면, 직역과 품사 전환 번역만으로는 자연스런 번역문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맥락 활용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ST의 어순에 맞고 TT 문맥에 맞게, ST의 시제와 시상을 TT에서 의역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통사론적 번역 전략인 품사 전환 번역 측면에서 보면, 영어와 한국어는 ‘시간의 언어화 단위의 차이’, ‘시간의 언어화 방법의 차이’, ‘시간의 언어화 단위에 중복되는 기능의 차이’, ‘시간부사 기능과 의미의 차이’로 인하여(<표 1> 참고), 시제와 시상의 직역이 힘든 경우가 있다. 시간의 언어화 단위가, 영어에서는 동사와 범조동사에 한정되어 동사(구)에서 시제와 시상이 표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시간의 언어화 단위가 어미와 시간부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시제와 시상 어미는 동사뿐만 아니라 관형사절과 부사절 등에도 다양하게 붙을 수 있다. 즉, 영어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시제와 시상에 적합하게 동사를 변화시키고 범조동사를 선택함으로써 동사(구)에서 현재, 과거, 미래 시제와 완료 및 진행 시상을 모두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영어처럼 동사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동사 이외에 시간부사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명사, 형용사, 의존형태소, 관형사(구, 절), 부사(구, 절) 등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통사론적 측면에서 품사 전환 번역을 하더라도 한국어답게 번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차적 시간번역과 같이 심층적 의미를 고려하여, 맥락 활용 번역을 시도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문장의 맥락을 활용하여 시제와 시상을 표현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의 ‘시제와 시상에 대한 단계별 영한 번역 전략’에 제시된 것처럼,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에서는 1단계인 ‘직역’(동사에서 번역)과 2단계인 ‘품사 전환 번역’(시간부사, 명사, 형용사, 의존형태소에서 번역)을 거친 다음에도 한국어답게 번역되지 않을 경우에는, ‘맥락 활용 번역’(문장의 심층구조를 활용하는 번역)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4.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 전략의 사례

##### 4.1. 통시론적 번역 전략인 품사 전환 번역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와 시상의 문법 체제가 달라서 영문 ST의 동사에서 표현된 시제와 시상이 한국어 TT에서 동사로 직역되기 힘들지라도, 영문 ST에서 표현된 시제와 시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그 밖의 품사를 한국어 TL에서 선택하면 시제와 시상 번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술어는 동사로만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그리고 명사(이러한 술어성 명사를 술어명사로 지칭한다)로도 투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홍재성 2002 126-27).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동사에 제시된 시제나 시상과 상관없이, 시간부사로써 시제와 시상이 결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현재 시간부사가 문장의 시간 표현을 결정한 예문

“지금 내 표정 어땠니(어떠하였니)?”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간부사 ‘지금’은 “말하는 바로 이때에”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예문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였지만, 현재 시제가 된다.

(2) 과거 시간부사가 문장의 시간 표현을 결정한 예문

“아버지가 내 성적을 벌써 알아?”

- 시간부사 ‘벌써’가 “이미 오래 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예문에서 서술·물음·명령 청유 종결어미 ‘-어/-아’가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과거 시제

가 된다.

(3) 미래 시간부사가 문장의 시간 표현을 결정한 예문

“비가 안 오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였을지라도, 시간부사 ‘올해’가 있기에 위의 예문은 미래 시제가 된다.

(4) 완료 시상부사가 문장의 시간 표현을 결정한 예문

“시간이 흘러 바야흐로 봄이 왔다.”

· 시간부사 ‘바야흐로’가 “이제 한창, 지금 바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왔다’가 단순 과거 시제로 쓰였지만,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완료 시상의 완료용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학교에는 요즈음 독감이 유행입니다.”

· 시간부사 ‘요즈음’이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의 무렵”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행입니다’가 단순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완료 시상의 계속용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5) 진행 시상부사가 문장의 시간 표현을 결정한 예문

“너, 여태 게임하니?”

· 시간부사 ‘여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게임하니’가 단순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진행 시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6) 완료진행 시상부사가 문장의 시간 표현을 결정한 예문

“나는 가끔 중국어 공부를 한다.”

· 시간부사 ‘가끔’이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뜨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다’가 단순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현재 완료진행 시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를 더러 만났습니다.”

· 시간부사 ‘더러’가 “이따금(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쓰였지만,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과거** 완료 진행 시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이따글 등산 갑시다.”

- 시간부사 ‘이따글’이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시다’가 단순 미래 시제로 쓰였지만,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미래 완료진행 시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시간 표현과 상관없이,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한국어가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오래 받은 까닭에, 중국어가 시간부사로써 시제를 나타내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시간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영어에서처럼 동사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시간부사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현되며, 더욱이 명사, 형용사, 의존 형태소에 의해서도 시간 표현이 가능한데, 이러한 영한 번역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부사를 추가한 번역

[ST 1]

“I've been out here since six o'clock,” she said.

(Lee 1995 74)

[TT 1]

“6시부터 여태 여기에 나와 있었다.” 아줌마가 말씀하셨다.

(김옥동 역 2005 143)

[ST 2]

There are risks in including that kind of approach in a speech like that because it's a feel-good event, but one of the things that I'm trying to be mindful of is not starting to get so comfortable or risk-averse that I end up sounding like everyone else.

(Rogak, L. (ed.) 2008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TT 2]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소 위험 부담이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지 않으려면 편안하고 두루뭉술한 말만 해서 안 된다

고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재서 역 2008 76-7)

[ST 3]  
My general attitude is that if I'm doing a good job in what I'm doing now, I can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higher office.  
(Rogak, L. (ed.) 2008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TT 3]  
제가 지금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다면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할 기회도 얻게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임재서 역 2008 69-70)

위의 [ST 1]에서는 동사 ‘have been’이 현재완료 시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TT 1]에서는 이를 단순 과거 시제인 ‘있었(단)다’로 번역하였지만,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완료시상 부사 ‘여태’를 추가시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 이래로 나와 있어 왔다’라고 직역하지 않았지만, 영어의 동사에서 표현된 완료시상을 한국어에서는 시간부사로 번역하였다. [ST 2]에서는 동사 ‘am trying’과 ‘is not starting’이 현재진행 시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TT 2]에서는 이를 현재진행 시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시간부사 ‘늘’을 추가하여 영어의 동사에서 표현된 진행 시상을 나타내 번역하였다. [ST 3]에서도 ‘what I'm doing now’가 역시 현재진행 시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TT 3]에서는 이를 현재진행 시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지금 맡은 일’이라고 번역한 후에, ‘현재로서는’이라는 시간부사를 추가하여 현재진행 시상을 번역에 반영하고 있다.

(2) 시간 표현 관련 명사를 추가한 번역

[ST 4]  
I taught in Detroit for one year, in the late forties. I remember a funny story about that.  
(Albom 1999 143)

[TT 4]  
40년대 후반에 디트로이트에서 1년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웃긴 일이 기억나는군요.

(공경희 역 2007 184)

[ST 5]

“You shall not mind killing if it is necessary.” He had once killed a native in a fit of temper. He was fined thirty pounds. Since then he had kept his temper.

(Lessing 2000 7)

[TT 5]

“필요할 경우에는 살인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그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일꾼 한 명을 죽인 적도 있었다. 그는 당시 벌금 30파운드를 물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질을 죽이면서 지내 왔다.

(이태동 역 2008 20)

위의 [ST 4]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동사 ‘taught’와 ‘remember’가 각각 과거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TT 4]에서는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taught’를 ‘가르쳤다’라고 동사로 번역하지 않았지만, 시간 표현 관련 명사 가운데 하나인 ‘지나간 어떤 때’를 의미하는 시간 관련 명사 ‘적’을 추가함으로써 이 명사를 통하여 과거 시제를 번역에 반영하였다. 마찬가지로 [ST 5]에 쓰인 과거완료 시상 ‘had once killed’를 [TT 5]에서는 시간 표현 관련 명사 ‘적’을 추가하여 과거완료 시상을 옮긴 경우이다.

(3) 복합명사를 만들어 사용한 품사 전환 번역

[ST 6]

It is our expectation that the trust built through this and other project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제 4차 제주평화포럼 영문 오찬사, 2007. 6. 22.)

[TT 6]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형성은 남북이 협력하고 통합되어 나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4차 제주평화포럼 국문 오찬사, 2007. 6. 22.)

위의 [ST 6]에서 ‘built’는 그 앞의 ‘trust’를 수식하는 시상(과거분사)으로서 ‘that has been built’(‘형성된 신뢰,’ 내지 ‘형성되어온 신뢰’)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TT에서는 이를 복합명사인 ‘신뢰형성’으로 품사를 전환하여 번역하고, 그 앞에 ‘통한’을 추가하여 시상이 나타나도록 배려하고 있다.

(4) 관형사를 만들어 사용한 품사 전환 번역

[ST 7]

For us to tell the 55-year-old who has been working in a steel plant all his life, to suddenly retrain to become a computer scientist, that's not going to happen.

(Rogak, L. (ed.) 2008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TT 7]

평생 철강 공장에서 일한 쉰다섯 살 먹은 사람에게 갑자기 재교육을 받아 컴퓨터 전문가가 되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임재서 역 2008 69-70)

위의 [ST 7]에서는 동사 ‘has been working’이 현재완료진행 시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TT 7]에서는 이를 현재완료진행 시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ㄴ’을 사용하여 관형사[명사의 수식어] ‘일한’으로 품사를 전환하여 번역하였으나, 그 앞에 나온 시간부사 ‘평생’을 통하여 현재완료진행 시상을 번역에 잘 반영하고 있다.

(5) 부사절을 만들어 사용한 품사 전환 번역

[ST 8]

The Six-Party Talks is a comprehensive process which seeks to address the various interest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rough this process, we aim to achieve a change in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and convince the North that it will be better off without the nuclear weapons in its arsenal.

(제 4차 제주평화포럼 영문 오찬사, 2007. 6. 22.)

[TT 8]

복핵문제 해결은 현재 6자회담을 통해 모색되고 있는 바, 6자회담은 모든 참가국의 다양한 이익을 다루는 포괄적인 해결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인식을 바꾸고, 핵무기 없는 미래가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제 4차 제주평화포럼 국문 오찬사, 2007. 6. 22.)

위의 [ST 8]에서는 현재와 미래 시제가 섞여 있지만, [TT 8]에 번역된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 시제이다. 한국어에서 종속절을 현재로 쓰는 특성을 반영하여, ‘부합할 것이라는 점’과 같이 미래 시제로 번역하지 않고, ‘부합한다는 점’이라고 단순 현재 시제로 번역한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인 ‘which seeks’를 ‘모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사절로 품사를 전환하여 번역하고 있다.

(6) 보조사를 사용한 품사 전환 번역

[ST 9]

Miss Maudie had known Uncle Jack Finch, Atticus's brother, since they were children.

(Lee 1995 43)

[TT 9]

모디 아줌마는 아빠의 동생인 잭 핀치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김옥동 역 2005 85)

위의 [ST 9]에서 동사 ‘had known’은 과거완료 시상인데, [TT 9]에서 ‘알았다’로 단순 과거 시제로 번역되었지만,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부터’를 사용하여 ST에서 동사로 표현된 과거완료 시상을 살려 번역하고 있다.

(7) 격조사와 부사절을 사용한 품사 전환 번역

[ST 10]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today,

and we are witnessing a rapid increase in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complex security concerns represent obstacles to securing a durable peace in the reg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deep-root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history and the overlapping territorial claims are some of these concerns that hang over Northeast Asia.

(제 4차 제주평화포럼 영문 오찬사, 2007. 6. 22.)

[TT 10]

동북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하나로서,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인식 문제, 영토 영유권 주장 등 복잡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역내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 4차 제주평화포럼 국문 오찬사, 2007. 6. 22.)

위의 [ST 10]은 현재 시제와 진행 시상이 혼합된 네 개의 동사가 포함된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T 10]에서는 두 문장으로 옮겨져 있다. 문맥에 따른 순차 번역을 위해서 ‘is one’을 직역하지 않고 격조사 ‘-로서’를 붙여 ‘하나로서’와 같이 품사를 전환하여 옮기고 있다. 또 ST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세 개의 주어는 그대로 직역하는 대신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품사 전환하여(“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인식 문제, 영토 영유권 주장 등 복잡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ST의 시제와 시상을 번역문에서 대체로 잘 살리고 있다.

(8) 부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품사 전환 번역

[ST 11]

At a time when globalization is accelerating and the economy is rapidly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there should be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gulate developments in advance and take countermeasures. (“Congratulatory Remarks by President Lee Myung-bak at the Opening of the World Knowledge Forum,” 2008. 10. 15.)

## [TT 11]

빠르게 세계화가 되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국제간에 넘나드는 이 시점에 사전 사후를 규제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아마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9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축사」, 2008. 10. 15.)

위의 [ST 11]에서 동사 ‘is accelerating’은 현재진행 시상으로 쓰여 있는데, [TT 11]에서 이를 ‘가속화 되고 있는’이라고 직역하지 않고 시간부사 ‘빠르게’와 동사 ‘(세계화가) 되다’로 분리시켜 품사 전환하여 의미가 쉽게 전달되도록 번역하였다.

이상과 같은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에 있어서 시간 관련 품사를 추가하거나 품사를 전환하는 번역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답게 번역하는 기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번역 기법의 필요성은 대략 세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영어에서 동사에 의해 제시된 시간 표현은 한국어에서 부득이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로 번역해야 할 경우가 있다. 둘째, 영어의 여러 문장이나 수식 어구(부사구, 부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등)를 한국어답게 축약하여 번역할 경우에, 영어의 동사에 표현되어 있는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에서 모두 동사에 반영하여 직역하기가 어렵다. 셋째, 영어의 동사에 표현되어 있는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의 동사를 사용하여 직역하게 되면 종종 우리말 표현이 어색하거나 단조롭게 되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과감히 품사를 전환하여 의역을 할 필요가 있다.

#### 4.2. 화용론적 번역 전략인 맥락 활용 번역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시, ST 내용의 맥락에 맞추어 번역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영어처럼 구조적인 언어가 아닌 대신에, 문장의 어미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여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특성이 강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층적 순차 번역은 시간 표현의 번역에 있어서 실제적이며 유용한 맥락 활용 번역의 전략이 될 수 있다.

[ST 1]

①There's more of everything now, including both overpriced tickets and bargains. Regarding the former, ②you'll be numbed and blinded by their billboards all over town. As concerns the latter, ③you'll have to scout around, ④but you'll be rewarded with some great shows at dynamite prices.

[TT 1]

이제는 모든 것들이 ①더 많아졌다. 예를 들면, 비싸지만 형편없는 쇼나 싸지만 실속 있는 쇼도 모두 좋아졌다. 실속 없는 쇼는 사람들을 어리둥절 하고 눈이 부시게 광고탑이 사방에 ②널려 있다. 실속 있는 쇼는 발품을 좀 팔아서 찾아 다녀야 ③하겠지만 ④그 보답으로 아주 좋은 쇼를 아주 싼 값에 ④볼 수 있다.

(성백환 2003 124-25)

위의 예문에서 적용된 ‘심층적 순차번역’이란, 심층 구조(deep structure, underlying structure)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어 어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으로서, 영어 어순에 따른 번역을 가로막는 접속사 등이 있는 문장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영어답게 원어민이 말한 순서대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성백환, 2003: 121-27). 이 ‘심층적 순차번역’에서는 영한 번역시 접속사와 수식어구를 비롯한 ST의 표현들이 순서에 따른 순차적 번역을 가로막는 원인에 주목한다.<sup>13)</sup>

이러한 순차번역의 원리를 적용해서 위에 인용한 [ST 1]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There's more’는 ‘더 많아졌다’로, ‘including’은 ‘예를 들면’으로, 그리고 ‘but you'll be rewarded with ...’는 “그 보답으로 ... 볼 수 있다”로 각각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말 번역문이 ST의 화자가 말한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시제의 변화다. 먼저 [ST 1]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제 ①‘There's’는 번역문 [TT 1]에서 과거 시제인 ①‘많아졌다’로, 미래 시제 ②‘you'll be’는 현재 시제인 ②‘널려 있

13) 한국어에서 “접속사, 관계대명사의 부재는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인구어와 대조되는 알타이 제어의 공통된 특성으로 일찍부터 관찰되어 왔다.” 이러한 접속사, 관계대명사의 부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국어에서 문장의 접속 기능은 동사/형용사와 같은 서술어의 어말어미 중 이른바 연결어미가 담당”한다(홍재성 2002 132).

다'로 각각 바뀌어 있다. 한편 미래 시제인 ③'you'll have to'는 미래 시제인 ③'하겠지만'으로 쓰였지만, 마지막으로 쓰인 미래 시제 ④'you'll be rewarded'는 현재 시제인 '④볼 수 있다'로 시제가 전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의 의미는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은 채 잘 간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한 문장 안에 종속절이 있을 경우, 주절의 서술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을 정확하게 나타내되 종속절의 서술어가 주절의 서술어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시제 불일치의 경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ST 2]

She used to cry over her sewing while Mary comforted her miserably,  
longing to get away.

(Lessing 2000 30)

[TT 2]

그녀는 뜨개질을 하다가도 메리 앞에서 흐느껴 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메리는 측은한 마음에서 그녀를 위로해 주면서도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태동 역 2008 53)

위의 번역 사례에서도 심층적 순차번역이 적용되었다. [ST 2]에는 접속사 'while'과 수식구 'longing to get away'가 있는데, [TT 2]에서는 이들을 영어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번역하기 위해, 'while'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로 번역하였고, 이 'while'이 이끄는 시간부사절에 이어지는 수식구 역시 순차번역하기 위해서, 'while'이 이끄는 시간부사절을 '주면서'와 같이 번역하여 수식구의 번역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심층적 순차번역 사례를 고려할 때, <표 3>의 '시제와 시상에 대한 단계별 영한 번역 전략'에 제시된 것처럼, 1단계인 직역(영어의 동사에 표현된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의 동사에서 번역)과 2단계인 '품사 전환 번역'(영어의 동사에 표현된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에서 동사 이외의 시간부사, 명사, 형용사, 의존형태소 등에서 번역)을 거친 다음에도, 번역문의 시간 표현이 한국어답지 못할 때는 마지막 단계로서 '맥락 활용 번역'(영어의 동사에 표현된 시제와 시

상을 한국어에서 문장의 연결 구조를 활용하여 번역)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ST를 TT에서 맥락 활용 번역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동사에 제시된 어떠한 시제나 시상 표현과도 상관없이, 문장의 맥락 속에서 시제와 시상이 결정되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현재시제가 미래시제에 의해서 맥락에 맞게 표현된 예문  
 “그는 이제부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공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가정에서는 가족의 한 사람일(‘이(다)’+‘-르’) 뿐이다.”

위의 예문에서 ‘사람일’에 쓰인 ‘-르’은 미래시제 관형사를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전성어미’이지만, 이 문장에서 ‘-르’은 미래 시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까지도 함께 맥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2) 과거시제가 현재시제에 의해서 맥락에 맞게 표현된 예문  
 “총리는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환영객에게도 인사를 하고서 사열대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위의 예문에서 ‘-고서’는 뒤에 나오는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문장에서 문장의 시제는 현재로 끝나고 있지만, 연결어미 ‘-고서’ 때문에 ‘인사를 한 행위’는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 (3) 미래시제가 현재시제에 의해서 맥락에 맞게 표현된 예문  
 “찾아오실 때마다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요즘 저는 논문을 쓰느라 너무 바쁠습니다. 몇 달간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살고 있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며,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한국어에서는 두 문장을 이어서 쓸 때,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시제가 일치할 경우에, 뒤 문장의 동사에서 시제를 한번만 나타내고, 앞 문장의 동사는 현재시제의 형태로 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논문을 쓰며’는 현재시제로 쓰였지만 미래시제를 나타낸다.

(4) 과거완료 시상이 현재시제에 의해서 맥락에 맞게 표현된 예문  
 “그는 무척 바쁜 것 같아. 오랜만에 그녀를 보았는데도, 대충 인사만 하  
 고서 나가버렸어.”

위의 예문에서 ‘-고서’는 뒤에 나오는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이런 까닭에 이 문장에서 ‘하고서’는 ‘나가버렸어’(과거시제)보다 앞선 과거완료 시상을 나타낸다.

(5) 현재진행 시상이 현재시제에 의해서 맥락에 맞게 표현된 예문  
 “그는 걸보기와는 다르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저것 봐. 음악을 들으  
 며 운동을 하고 있잖아.”

한국어에서는 두 문장이 이어질 때,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시상이 일치할 경우에, 뒤 문장의 동사에서 시상을 한번만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들으며’(단순 현재시제)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와 같이 진행 시상을 맥락적으로 나타낸다.

(6) 현재완료진행 시상이 현재시제에 의해 맥락에 맞게 표현된 예문  
 “그는 외국에서 살지 않았는데도 영어를 아주 잘 해. 회화 카세트테이프를 들으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는 것 같아.”

위의 예문에서 ‘들으며’는 단순 현재시제이고 문장의 동사를 비롯하여 어느 품사에도 현재완료진행 시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적으로 완료진행 시상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한국어의 맥락적 시간 표현을 고려할 때, 영어에서 표현된 시제와 시상을 영한 번역시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아니라 어미를 활용하여 문맥에 맞춰 번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용론적 번역 전략을 적용한 영한 번역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완료 시상과 현재 시제의 맥락 활용 번역

[ST 3]

Now that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has been resolve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s back on track.

(「제 4차 제주평화포럼 영문 오찬사」, 2007. 6. 22.)

[TT 3]

이제 BDA 문제가 해결된 만큼, 6자회담 과정이 본 궤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 4차 제주평화포럼 국문 오찬사」, 2007. 6. 22.)

위의 [ST 3]에서 동사는 현재완료 시상 ‘has been resolved’와 단순 현재 시제 ‘is’가 섞여 있지만, [TT 3]에서는 한국어의 맥락적 시간 표현 방식에 따라서 종속절의 ‘has been resolved’를 ‘해결된 만큼’이라는 과거 시제 형태의 어미를 써서 번역하고, 주절의 서술어인 ‘is back’에 현재완료 시상을 반영하여 “복귀하게 되었습니다”로 번역하였다.

(2) 과거 시제와 과거완료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4]

At the cemetery, Morrie watched as they shoveled dirt into his mother's grave. He tried to recall the tender moments they had shared.

(Albom 1999 73)

[TT 4]

그는 묘지에서 어머니의 무덤에 흙이 뿌러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함께한 좋은 순간들을 기억해 보려 애를 썼다.

(공경희 역 2007 102)

위의 [ST 4]에서 첫 번째 문장의 동사 ‘watched’와 ‘shoveled’는 모두 과거 시제이지만, [TT 4]에서는 한국어의 맥락적 시간 표현 방식에 따라서 주절의 서술어 ‘watched’만 ‘지켜보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직역하고, 종속절의 ‘shoveled’는 ‘뿌러지는’이라고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으나, 실제로는 과거 시제임을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T 4]에서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과거 시제 ‘tried’와 과거완료 시상 ‘had shared’가 섞여 있지만, [TT 4]에서는 한국어의 맥

략적 시간 표현 방식에 따라서 주절의 서술어 ‘tried’만 ‘애를 썼다’라고 과거 시제로 직역하고, 종속절의 ‘had shared’는 ‘함께 했던’이라고 시제를 직역하지 않고 ‘함께한’이라고 과거로 번역하였으나 과거완료 시상임이 맥락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3) 과거 시제의 맥락 활용 번역

[ST 5]

In that early severity of the Puritan character, an inference of this kind could not so indubitably be drawn. It might be that a sluggish bond-servant, or an undutiful child, whom his parents had given over to the civil authority, was to be corrected at the whipping-post.

(Hawthorne 2000 44)

[TT 5]

초기 청교도들이 지녔던 엄격한 성격으로서는, 확신을 갖고 그 같은 추측을 내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리의 손에 넘겨진 게으름뱅이 하인이나 불효막심한 자식놈이 형장에서 곤장을 맞는 장면일 수도 있다.

(박경미 역 2005 9)

위의 [ST 5]에서 ‘was to be corrected at the whipping-post’의 ‘was to’는 ‘be to’의 가능 시상이 과거 시제로 쓰인 문구이지만, [TT 5]에서 ‘-이었을 수도 있다’와 같이 직역하지 않고 “-일 수도 있다”라고 현재 가능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실제로는 과거 가능 시상임이 문맥상 쉽게 파악될 수 있다.

(4) 미래 시제의 맥락 활용 번역

[ST 6]

Therefore, as far as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concerned,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gnifies much more tha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success. It represents an opportunity for us to pool our collective wisdom and launch an effective regional security framework in Northeast Asia, as was eloquently presented in President Roh’s keynote speech this morning.

(「제 4차 제주평화포럼 영문 오찬사」, 2007. 6. 22.)

[TT 6]

따라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은 단순한 핵 비확산의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의 기초연설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지역안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 4차 제주평화포럼 국문 오찬사」, 2007. 6. 22.)

위의 [ST 6]에는 동사 네 개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섞여 있는데, [TT 6]에서는 맨 마지막 서술어인 ‘represents’를 ST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될 것입니다’라고 미래 시제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 나오는 시간 표현의 본래 의미를 번역문에서 살려주고 있다.

(5) 현재완료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7]

Since its launch in 2001, the Jeju Peace Forum has served as a valued venue for an international exchange of view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forum will indeed prove a great success.

(「제 4차 제주평화포럼 영문 오찬사」, 2007. 6. 22.)

[TT 7]

제주평화포럼은 2001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서, 유익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포럼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제 4차 제주평화포럼 국문 오찬사」, 2007. 6. 22.)

위의 [ST 7]에서 동사 ‘has served’는 현재완료 시상이지만, [TT 7]의 동사에서 는 이를 ‘하여 왔습니다’로 시제 직역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진행 시제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지나간 어느 일정한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이래’를 추가하여 문맥 속에서 현재완료 시상을 살렸다.

(6) 과거완료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8]

People did ask, cursorily, why the murderer had given himself up. There was not much chance of escape, but he did have a sporting chance.

(Lessing 2000 5)

[TT 8]

사람들은 살인범이 왜 자수를 했느냐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무사히 도주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번 모험을 걸어 볼 만한 기회는 있었기 때문이다.

(이태동 역 2008 17)

[ST 9]

Having waited seven years before I proposed to Janine, I wondered if people my age were being more careful than those who came before us, or simply more selfish?

(Albom 1999 147)

[TT 9]

나는 제넌과 7년이나 사귄 끝에 프로포즈했다. 결혼하기까지 그렇게 주저했던 것은 내 또래가 앞 세대보다 신중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이기심이 많아서일까? 궁금했다.

(공경희 역 2007 190)

[ST 10]

Morrie, true to these words, had developed his own culture— long before he got sick. Discussion groups, walks with friends, dancing to his music in the Harvard Square church.

(Albom 1999 42)

[TT 10]

당신의 말씀대로 선생님[Morrie]은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했다. 병이 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즉 여러 개의 토론 그룹을 운영했고, 친구들과 산책을 했으며, 하버드 스퀘어 교회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공경희 역 2007 64)

위의 [ST 8]에서 과거완료 시상 ‘had given’은 [TT 8]에서 ‘했느냐’라고 단순 과거 시제로 번역되었으나, 이는 주절의 동사 ‘asked’가 과거이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과거완료 시상임을 문맥에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ST 9]에서는

‘Having waited’가 과거완료 시상이고 ‘proposed’는 단순 과거 시제인데, [TT 9]에서는 문맥의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끝에’를 추가하여 문맥상 과거완료 시상이 파악되도록 번역하며 ‘proposed’만 단순 과거 시제로 직역하였다. 한편, [ST 10]에서는 과거완료 시상 ‘had developed’, 단순 과거 시제 ‘got’이 섞여 있는데, [TT 10]에서는 동사가 모두 단순 과거 시제로만 번역되었다. 즉, ‘had developed’가 과거완료 시상이 아니라 단순 과거 시제 ‘창조했다’로 번역되었으나, ‘병이 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란 부사형 문구에 의해서 실제로는 과거완료 시상임이 문맥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또한 [ST 10]에서 “Discussion groups, walks with friends, dancing to his music”은 과거에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기 명사형으로 현재완료 내지는 진행 시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TT 10]에서는 이를 과거 시제로 번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과거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내용임을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7) 현재진행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11]

My general attitude is that if I'm doing a good job in what I'm doing now, I can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higher office.

(Rogak, L. (ed.) 2008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TT 11]

제가 지금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다면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할 기회도 얻게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임재서 역 2008 69-70)

위의 [ST 11]에는 진행 시상이 두 번, 즉 ‘I'm doing’과 ‘what I'm doing now’에 쓰여 있지만, ‘I'm doing’만 ‘하고 있다면’으로 진행 시상을 반영하여 번역하였고, ‘what I'm doing now’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라고 진행 시상으로 직역하는 대신에 진행 시상의 반영 없이 ‘제가 지금 맡은 일’이라고 단순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으나, ‘I'm doing’(‘하고 있다면’)의 문맥에 의해서 ‘what I'm doing now’의 진행 시상이 TT의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잘 살아 있다.

(8) 과거완료와 진행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12]

This took him three-quarters of an hour, and by the time he was finished, and had picked the pieces of green glass from the mud and thrown them into the bush, the sweat was soaking his face and hair.

(Lessing 2000 8)

[TT 12]

사십오 분이내 걸려 타이어를 교체하고 진흙탕 길에서 유리 조각들을 골라내어 덩불 속으로 모두 던져 버렸을 무렵, 그의 얼굴과 머리는 땀으로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태동 2008 22)

위의 [ST 12]에는 과거완료 시상 ‘had picked’와 ‘(had) thrown’ 및 과거진행 시상 ‘was soaking’이 섞여 있는데, 이 동사들이 [TT 12]에서는 ‘골라내어’, ‘던져 버렸(다)’, ‘되어 버렸다’와 같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형태로 각각 번역되었으나, 대략 어떤 시기와 일치하는 ‘즈음’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 관련 명사 ‘무렵’이 첨가됨으로써 완료 시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무렵, …되어 버렸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was soaking’의 과거진행 시상을 번역문에서 실제 시상으로 파악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9) 현재완료진행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13]

Must be well over thirty. She has been going strong for years.

(Lessing 2000 38)

[TT 13]

아마 서른도 훨씬 넘었을 거야.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어.

(이태동 역 2008 66)

위의 [ST 13]에는 현재완료진행 시상 ‘has been going’이 있는데, [TT 13]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지’를

첨가함으로써 번역문에서도 현재완료진행 시상을 시간적인 맥락 속에 잘 살려 주고 있다.

(10) 과거진행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14]

It was a dumb thing to do, and this time it was serious-already on probation, I'd have to appear before a judge. I was looking at jail time, and I was scared.

(Randy Travis, "She's My Woman," *Guideposts* 2002년 2월호)

[TT 14]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고 이번엔 사태가 심각했다. 이미 보호관찰 상태에서 판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다. 감옥 가는 건 시간문제여서 난 두려웠다.

(김남훈 외 역 2002 9)

[ST 15]

And so, on this August morning, he was glad that he was leaving London and going to be for some days on an island off the Devon coast.

(Christie 2001 11)

[TT 15]

따라서 이 8월의 아침 나절, 런던을 떠나 데번 해안의 섬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 그는 행복했다.

(김남주 역 2006 19)

위의 [ST 14]에는 ‘곧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과거진행 시상 ‘was looking at jail time’이 있는데, 이것이 [TT 14]에서는 ‘감옥 가는 건 시간문제여서’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단순 현재로 번역되었으나, 이 표현 앞뒤의 내용으로 인하여 과거진행 시상이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번역되었다. 마찬가지로 [ST 15]에는 ‘곧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과거진행 시상 ‘was leaving’과 ‘(was) going’이 있는데, 이것이 [TT 15]에서는 ‘런던을 떠나 데번 해안의 섬에서 며칠을 보내게 될’이 아니라 ‘런던을 떠나 데번 해안의 섬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과 같이 단순 현재 시제로 번역되었으나, 문맥의 내용상 ‘곧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과거의 미래 시

상이 과거 시제를 통해 표현되었다.

(11) 미래진행 시상의 맥락 활용 번역

[ST 16]

Freddy, wherever you go, whatever happens, don't forget that I will be praying for you. God always hears a mother's prayer.

(Fred Mayer, "Moment of Truth," *Guideposts* 2002년 1월호)

[TT 16]

프레드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가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김남훈 외 역 2002 32)

위의 [ST 16]에는 미래진행 시상 ‘will be praying’이 있는데, 이것이 [TT 16]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단순 현재 시제로 번역되었으나, 이 표현 앞뒤의 내용으로 인하여 미래진행 시상임이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번역 사례들을 중심으로 볼 때, 시간 표현에 대한 영한 번역에 있어서 한국어의 어미 활용 등을 통한 맥락 번역은 피할 수 없다. 시제와 시상에 대한 영한 번역시 한국어의 맥락 번역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영어의 어순에 맞게 순차 번역할 경우에,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문맥에 맞게 시제와 시상을 적절히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어의 동사에 의해 제시된 시간 표현을 한국어의 동사로 직역하기가 어렵거나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로도 표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국어에 맞는 시제와 시상을 문맥에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어의 동사에 표현되어 있는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의 동사만을 가지고 직역하게 되면, 비문이나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문맥 속에서 시제와 시상의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다.

## 5.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한 번역사는 영어의 시제와 시상을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한국어로 직역하기 힘든 경우에, 품사를 적절하게 전환하여 번역하는 통사론적 번역 전략과 맥락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화용론적 번역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영한 번역은 특정 유형의 시제와 시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영문 ST에 대하여 품사전환과 맥락활용 번역 전략을 디자인해내는 능력의 형성으로부터 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시제 편중의 영문 ST를 한국어답게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품사전환과 맥락활용 번역 기법을 다양하게 익히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번역문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어 시제와 시상 어미의 능숙한 사용, 영문 ST의 동사들에 표현된 시간을 한국어 TT에서 다채롭게 품사전환 내지 맥락활용 번역 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한 번역사는 영어의 시제와 시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전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영문 ST의 동사들에서 표현된 시간을 한국어 TT에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세부적인 번역 기법을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자모. 2002. 「(통)문화적 텍스트로서의 현대 인디언 문학」. 새한영어영문학회 편. 『2002년도 새한영어영문학회 봄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77-92.
- 공경희 역. 2007.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서울: 세종서적.
- 곽명단 외 역. 2001.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http://www.korean.go.kr>)
- 김남주 역. 2006.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2. 서울: 황금가지.
- 김남훈 외 역. 2002. 『가이드포스트(Guideposts)』 37(1), (2). 서울: 가이드포스트.

- 김상태. 2005. 『현대국어 시간 표현 어휘 연구: 시간부사의 형태·의미·계량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방.
- 김옥동 역. 2005. 『앵무새 죽이기』. 서울: 문예출판사.
- 김정오. 2004. 「영어 시제·상과 시간부사구와의 상관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1997. 「번역학의 성립과 그 전망」. 『비평문학』 11: 117-36.
- \_\_\_\_\_.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_\_\_\_\_.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55-75.
- 김천학. 2007.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논문.
- 문숙영. 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박사학위논문.
- 민현식. 2004.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서울: 한국학술정보.
- 박경미 역. 2005. 『주홍 글씨』. 서울: 혜원출판사.
- 박지애. 2001. 「영어의 시제와 상에 관한 의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철. 2004. 「한국인과 중국인의 영어 시제·상 습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진영. 2005. 「국어 관형절 어미에 관한 연구: 시간 관련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어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서정수. 2008. 『한국어의 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성백환. 1998. 「명제적 순차 번역과 영어 독해 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5(1): 179-94.
- \_\_\_\_\_. 2003. 「심층적 순차번역의 방법과 의의」. 『번역학연구』 4(2): 117-29.
- \_\_\_\_\_. 2006. 「무생물 주어로 시작되는 타동사 문장의 순차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7(1): 105-29.
- 송현옥. 1999. 「Adrienne Kennedy 극의 “기억”에 관한 연구: 요술 거울에 비친 굴절된 자화상」. 『현대영미드라마』 11: 57-83.
- 양재용. 2007. 『T.S. 엘리엇 문학과 베르그송 철학』. 서울: 한국학술정보.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장관 연설문

(<http://www.mofat.go.kr/press/majoractivity/speech>)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 229-48.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 이기동.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이수득. 2003. 「국어 선어말어미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 시제, 상, 양상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종일. 2001. 「번역의 어려움과 재미: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두 번역본」.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11: 223-39.
- 이태동 역. 2008. 『풀잎은 노래한다』. 서울: 민음사.
- 임채서 역. 2008.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 서울: 중앙북스(주).
- 청와대 국문 홈페이지의 대통령 연설문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list.php](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list.php))
-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의 대통령 연설문  
([http://english.president.go.kr/pre\\_activity/speeches/speeches\\_list.php](http://english.president.go.kr/pre_activity/speeches/speeches_list.php))
- 표현석. 2005. 「사무엘 베케트의 극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홍재성. 2002. 「동사(1)」. 『새국어생활』 12(3): 125-43.
- Albom, Mitch. 1999. *Tuesdays with Morrie: An Old Man, a Young Man, and Life's Greatest Lesson*. New York: Doubleday.
- Allan, Keith. 2001. *Natural Language Semantic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 Baker, Mona.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Binnick, Robert I. 1991. *Time and the Verb: A Guide to Tense and Aspect*. Oxford: Oxford UP.
- Canfield, Jack, Hansen, Mark Victor, and Hansen, Patty. 1996. *Condensed Chicken Soup for the Soul*.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
- Christie, Agatha. 2001. *And Then There Were None*. New York: St. Martin's Paperbacks.

- Comrie, Bernard. 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UP.
- \_\_\_\_\_. 1985. *Tense*.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UP.
- DeCapua, Andrea. 2008. *Grammar for Teachers: A Guide to American English for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New York: Springer.
- Hatim, Basil. and Ma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_\_\_\_\_ and Munday, Jeremy. 2004.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New York: Routledge.
- Hawthorne, Nathaniel. 2000. *The Scarlet Letter*.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Hirsh-Pasek, Kathy. and Golinkoff, Roberta Michnik. 2006. *Action Meets Word: How Children Learn Verbs*. Oxford: Oxford UP.
- Lee, Harper. 1995. *To Kill a Mockingbird*.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 Lessing, Doris. 2000. *The Grass is Singing*. New York: Harper Perennial.
- Lester, Mark. 2008. *McGraw-Hill's Essential ESL Grammar*. The McGraw-Hill Companies.
- Matthews, Peter. 2001. *A Short History of Structur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P.
- Mozersky, Joshua M. 2000. "Time, Tense and Special Relativity."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14(3), 221-236.
- Olsen, Mari Broman. 1997.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Routledge.
- Rogak, Lisa. (ed.).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New York: Mendel Media.
- Shuttleworth, Mark. and Cowie, Moira.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nell-Hornby, Mary. 1995.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Sorvali, Irma. 1996. *Translation Studies in a New Perspective*. N.Y.:  
Europa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Viaggio, Sergio. 1994. "Theor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r Admonishing  
Translators to be Good," In Dollerup, C. and A. Lin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7-107.

Williams, Jenny. and Chesterman, Andrew. 2002. *The Map: A Beginners'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on Tense and Aspect**Seol, Ok-soon  
(Sejong University)

There's a radical difference, in the grammatical categories and usages of tense and aspect, between English and Korean. Tense, in English, is a grammatical concept of verb that indicates the past, the present, or the future, while aspect as a time of situation stands for a grammatical representation of duration, completion, and repetition of event or state. However, Korean represents tense, aspect, and mood in various ways beyond verb-level.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revealing English-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on tense and aspec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it conducted literature review ranging from linguistics of both English and Korean as well as in the field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English-Korean translators need to use two strategies for a better translation of tense and aspect: 'translation through conversion of parts of speech' and 'translation through grasp of contexts.' The former strategy reflects lexical/syntactic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at is why Korean tense, unlike English tense, is not always expressed by verb, but often implied by adverb, and sometimes tense information appears in the inflection of adjective, and even in noun and article with a verb-like quality of tense/aspect. The latter strategy means translating by way of grasping the effects of semantic performance within underlying structure without using external tense/aspect. That is why Korean tense/aspect can be often situated and decided in the sentence context. Considering the above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rther detailed skills of translation on time-related expressions between English and Korean.

▶ Key Words: tense, aspect, time, translation, English-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설옥순

세종대 강사

oksoon@sju.ac.kr

관심분야: 영한번역, 영한 문화의 차이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